

# 푸른 산호초

##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결그룹 뉴스 멤버 하나가 지난 6월 말 도쿄돔에서 1980년대 일본 국민가요 '푸른 산호초'를 부른 영상은 지금도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뉴진스 오지상'으로 불리는 아저씨 팬들이 찌릿찌릿한 목소리로 때창하는 게 인상적이다. 수많은 영상은 대부분 이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린 '직캠'이다. 조회수 수백만 이상인 것이 수도룩하다. 달포 넘게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

존재했다. 일본 콘텐츠에 용돈을 쓰면서도 그것을 땀땀하게 드러내진 못했다. 자칫 '친일파' '매국노'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음지에서 소비되던 일본 문화의 위상은 1998년 가을 갑자기 달라졌다. 국제 영화제 수상작들이 '카게 무사' '하나비' '우나기'에 이어 '러브레터'가 극장에 걸렸다. 출판물,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도 한국에 순차 상륙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일각에선 퇴폐적 왜색 문화 범람, 한국 문화 붕괴를 우려했다. 과거 일본이 대중문화 개방을 압박할

## 한류 콘텐츠 전성기 열어준 1998년 DJ 대중문화 개방한 일관계 개선 앞장선 DJ도 '뉴진스 오지상'은 뜻밖일 것

때마다 정부가 내세우던 논리도 그랬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은사미' 열풍이 몰아쳤고,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현지 음반 차트와 시상식을 휩쓸었다. '대장금'을 비롯한 K드라마와 영화, K팝 가수들의 해외 진출 소식이 이어졌다. 한류는 그렇게 태동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었다. 1998년 10월 일본 방문 당시 아키히토 일왕에게 '천황 회하'라고 했다. 목포상고 시절 은사와의

만남에선 '센세와타시데스, 아노 다이 주(大)테스요'라며 장씨계명의 흑역사도 셉프 소환했다. 하이라이트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었다. 성과를 초월해 지금도 '한일 관계의 금자탑'으로 인정되는 치적이다. 그 후속 조치 1호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었다.

한국에서 일본과 잘 지내자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반일 정서에 편승하는 게 훨씬 쉽고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일본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망언을 일삼는 것과 같은 구조다. 역대 한국 지도자 대부분은 한일 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 보수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버섯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했다. DJ마저 그런 풍조와 타협했다면 K콘텐츠 전성기는 훨씬 늦어졌을지 모른다.

물론 DJ에게 큰 허물이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휘청대던 김정일 정권이 햇볕 정책 덕에 기자회견했다. 결과적으로 3대 세습과 핵·미사일 폭주, 인권유린을 도운 셈이다. 이보다 악성은 'DJ 정진'을 잇는다면 햇볕정책만 계승한 노무현·문재인 정권이다. 특히 촉망 부르고 '노 재팬'을 선포하며 한일 관계를 도둑 내버린 DJ를 비교하긴 어렵다. 그런 DJ조차 K팝 걸그룹 멤버가 된 베트남 계 호주 소녀가 '푸른 산호초'를 불러 일본 중년의 40년 전 향수를 자극하는 날 이를 거리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 김준의 맛과 섬

### 별고 짬뽕 전골

추어탕에서 미꾸리를 찾기 어렵듯 짬뽕탕도 짬뽕어 형태를 볼 수 없다. 뼈를 발라내고 육수와 시래기를 넣고 끓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서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혹 손님 중에 정말 짬뽕어로 끓이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마다 '별고 갯벌에서 나는 짬뽕어로 끓입니다'라고 하지만, 미심쩍어하는 분에게는 짬뽕어 전골을 권한다. 전골은 짬뽕어가 뜬 채로 들어간다. 별고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대로다. 또렷한 형체에 기겁해 먹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물맛을 보면 달라진다. 탕과 달리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하다.

짬뽕어는 팔갯벌에 서식한다. 미세한 진흙으로 이루어진 갯벌로 별고 갯

벌이나 순천만 갯벌이 포함된 여자가 대표적 서식지이다. 이곳에서 그물이나 낚시를 이용해서 잡는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빨배를 타야 한다. 모래갯벌과 혼합갯벌은 걸어갈 수 있고, 경운기나 트랙터로 이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팔갯벌은 빨배를 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한 발은 빨배에 올리고, 다른 발로 갯벌을 밀치면서 스키를 타듯 이동한다. 스키보다 길고 폭이 넓은 나무로 만든 어구다. 그 빨배 위에서 낚시를 한다. 몇 개의 낚시를 갈고리 모양으로 묶어서 짬뽕어를 낚아채는 '홀치기낚시' 어렵다.

짬뽕어는 아주 예민하다. 새 그림자만 보여도 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하늘이 사람이 다가가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눈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갯벌과 하



늘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과 진화의 결과다. 그래서 '자산어'에 '짬뽕어'를 '철목어(凸目魚)'라고 기록했다. 그레도 서식할 곳에 죽치고 기다리는 왜가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살살 구멍에서 나오던 짬뽕어가 왜가리 날카로운 부리에 딸려왔다. 여자만 옆에 터를 잡고 지내는 나뭇잎에 짬뽕어 딸리 울리고, 왜가리처럼 만찬을 즐긴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얼마 못 가서 시체가 썩일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남은 여름을 위해 짬뽕어 전골을 비우자.

newdaily.co.kr 뉴데일리

## 김문수·이진숙·김태규·박충권 등장, 실의 빠졌던 자유·보수·우파 고무시켰다

자유·보수·우파, 국회도 국힘 당권도 빼앗겨 | [윤석열+정통 자유민주 세력] 對 [극좌+중간파 정치인·언론] | 무엇이 제대로 된 [중도확정]인가?

**스타 탄생**

정통 자유·보수·우파 스타들이 전면에서 떠올랐다.

- 김문수 노동부 장관
- 이진숙 방청통신위원회 위원장
- 김태규 방청위 부위원장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 민영삼 코바로 사장
- 그리고 탈북동포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人事)에 한동안 실의에 빠졌던 자유·보수·우파는 크게 고무되었다.

**[중도 확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보수·우파는 4.10 총선에서 국회를 빼앗겼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당마저 빼앗겼다. 자칭 [중도/보수]의 진보란 제매에.

[중도/보수의 개혁] [중도 확정]이란 단어들은 본인의 의미가 나뉠다는 뜻이 아니다. [중도 확정]은 진보이다.

그러나 자유·보수·우파가 제 자리를 떠나 [중간] 어디로 좌(左)클릭해야 [중도 확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도 확정]은 자유·보수·우파가 강력한 인력(引力)으로 중간의 [왔다 갔다 유권자(swing voters)]와 [미결정 유권자(undecided voters)] 일부를 이쪽으로 당겨올 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이쪽의 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 이론과 정책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 주적(主敵)에 대한 치열한 전투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떠도는 일부를 이쪽으로 확 잡아당길 수 있다.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스(動力學)가 [제대로 된] 중도 확정(A)이다.

**※ 한동훈 국힘은 자포자기하는 중?**

"내가 당신 쪽으로 다가갈 터이니 **예뻐주세요**"라고 하는 것(B)은, 자기 존재 이유를 자포자기하는 짓이다.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는 바로 그런 (B)쪽에 당권을 내준 꼴이

**대한민국 건국 노선 지켜야**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의 [전국 호국 선진화]를 이끈 세대와 그 후속 세대는 갈수록 더 찢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 끝은 [서울 최후의 날]일 것이고!

**힘찬 반격, 시작됐다**

지금도 상황은 여전하다. [윤석열 + 정통 자유민주 세력]은 (A)로 가려 한다. [극좌 + 중간파 정치인·언론]은 (B)로 가려 한다.

김문수·이진숙·김태규·박충권 등의 등장은 (B)에 대한 (A)의 힘찬 반격이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 社 說

###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8월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다. 1년간 총 5만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 지난 6월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였다.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괴담을 퍼뜨렸다.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좌파 단체와 방송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세습 우력 너나 먹어" "차라리 X를 먹었다"며 불안을 조장했다. 한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천일염 사재기'까지 벌어졌다. 그 피해는 우리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이 지나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다. 사고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오염수가 처리도 없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는데 오염수를 처리해 훨씬 적은 양을 방류하는데 어떻게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방류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우리 바다로 오면 삼중수소 증가량은 X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멕시코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식품 안전에 가장 엄격한 유럽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거의 모든 원자력 전문가들도 괴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원자력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재명 전 대표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했다. 괴담 살포에 앞장선 좌파 인사들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했다. 전교조 간부는 교사들 개인 정보를 빼내 '방류 반대' 돌려 메일을 보내고, MBC는 물고기 폐족 음 거짓 영상을 내보냈다.

이들이 이런 허위 괴담에 매달린 것은 광우병 괴담처럼 정부에 친일 프레임으로 씌워 궁지 못몰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광우병 괴담 때에는 달랐다. 엉뚱한 피해를 본 수산업자들이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정확히 그말 그대로다. 괴담이 먹히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갑자기 목포의 횡집에서 생선 회식을 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다. 하루 전까지 수산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었다.

민주당은 지금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도리어 '방류 방조'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기까지 했다.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때도 마찬가지였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다 '아니면 말고'다.

###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

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들 신상을 유출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허를 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보사령관(소장)과 '인적 정보 부대' 여단장(준장)이 다른 일로 총출해 서로 고소를 했다. 장군 이래 율례 찾기 어려운 일이다.

사령관과 여단장은 예비역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고 한다. 사령관은 '하극상'이라고 하고, 여단장은 폭행·직권남용을 당했다고 한다. 둘 사이의 근본 문제는 육사 후배인 사령관이 선배인 여단장을 제치고 먼저 진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요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부대 임무는 엉망인데 낡은 기수 문제로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다.

정보사는 군무원이 비밀 요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빼내 유출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월 유관 정보기관

의 통보를 받고서야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다. 이 사건이 외부에 노출된 시기와 사령관과 여단장의 총출 시기가 겹친다. 이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노출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보사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정은 핵미사일 앞세워 4대 세습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정보사의 강점인 '인적 정보'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006년 1차 북 핵 실험 당시 핵 실험장 인근 흙을 직접 가져온 것도 정보사였다. 정보사는 군사 분쟁 지역 정보도 수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용, 대만 해협 위기 정보 등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 대북·군사 첩보에선 국무원 이상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 정보 부대의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인적 정보'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부대뿐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캡처'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자력을 보여주자"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집권 플랜으로 '먹사니즘'을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더어린포럼' '기본사회 정책모임' 등 경제 관련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를 긍정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은 말고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공부'를 강조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승리 사세금' 일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는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인가.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러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7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법, 반도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시설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민생 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은 최근에는 진일보한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두 달 동안이 전 대표 방탄과 MBC 사수가 목적인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내는 등 정쟁 일변도였다. 민주당은 IT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은 물론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면서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러면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니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하는 경제 정당이 되겠다면 방탄과 탄핵, 특검에 쏟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쏟기 바라나.

NO. 10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